(758)

조 선

주체108
(2019) 9

차　례

표지: 록음짙은 보통강반　　사진 공유일

화보 《조선》은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로 발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6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6돐에 즈음하여 7월 27일 오전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비극적인 년대에 우리 조국을 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한 참전렬사들의 불멸의 공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자유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의 위대한 넋이 영원한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할것을 기원하시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글 김선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국립교향악단의 7. 27기념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국립교향악단의 7. 27기념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자들, 중요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관현악 《7. 27행진곡》으로 시작된 음악회의 무대에는 교향시 《영원한 승리의 찬가》, 녀성독창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녀성3중창 《우리의 국기》가 올랐다.

전시가요들과 시대의 명곡들로 구성된 교향시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들을 추억하였다.

관람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을 따라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온 영광의 년대들을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사회주의조선의 새로운 영웅적투쟁사를 빛내여나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글 김선경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사격구령이 내려지자 신형전술유도탄은 천둥같은 폭음을 터뜨리며 대지를 박차고 목표방향을 향해 날아갔다.

위력시위사격을 통하여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전투적성능지표들이 다시한번 만족스럽게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격 전 과정을 주의깊게 관찰하시고 오늘 우리는 신형전술유도무기체계의 우월성과 완벽성을 더 잘 알게 되였다고,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 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수 있게 된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첨단무기체계개발보유라는 사실은 우리 무력의 발전과 국가의 군사적안전보장에서 커다란 사변적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에게 조선반도 남쪽의 시끄러운 정세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최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저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이고있는 최신무장장비들은 감출수 없는 공격형무기들이며 그 목적자체도 변명할 여지없고 숨길수 없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할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기에 무력화시켜 쓰다 버린 파철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적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활동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짓을 하는 이중적행태를 보이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부득불 남쪽에 존재하는 우리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무기체계들을 줄기차게 개발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과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에게 련속적으로 개발해나갈 중요한 전략 및 전술무기체계들에 대한 연구방향을 가르쳐주시면서 나라의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제시하시였다.

글 최광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제원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조선로동당의 군사전략적기도를 원만히 관철할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서가 바다인 우리 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무장장비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글 김 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8월 2일 새벽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의 시험사격을 또다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화력진지에 나가시여 포차의 전투전개시간을 측정하시며 대구경조종방사포체계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감시소에서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시험사격을 통하여 목적한 조종방사탄의 고도억제수평비행성능과 궤도변칙능력, 목표명중성, 전투부폭발위력이 만족스럽게 확정되였다.

글 박병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8월 6일 새벽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함께 보았다.

또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감시소에서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발사를 참관하시였다.

조선의 서부작전비행장에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도권지역 상공과 나라의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동해상의 설정된 목표섬을 정밀타격하였다.

위력시위발사를 통하여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실전능력이 의심할바없이 검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형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적한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행동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회가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력시위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과 과학자, 군수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글 강수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새 무기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위력한 새 전술무기들의 성공폭음을 련일 터뜨리며 온 나라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 조선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은 조선로동당에서 최근에 연구개발방향을 제시한 또 하나의 새 무기체계를 완성하였다.

새 무기체계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시기 위하여 이른새벽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간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발사장에서 새 무기를 돌아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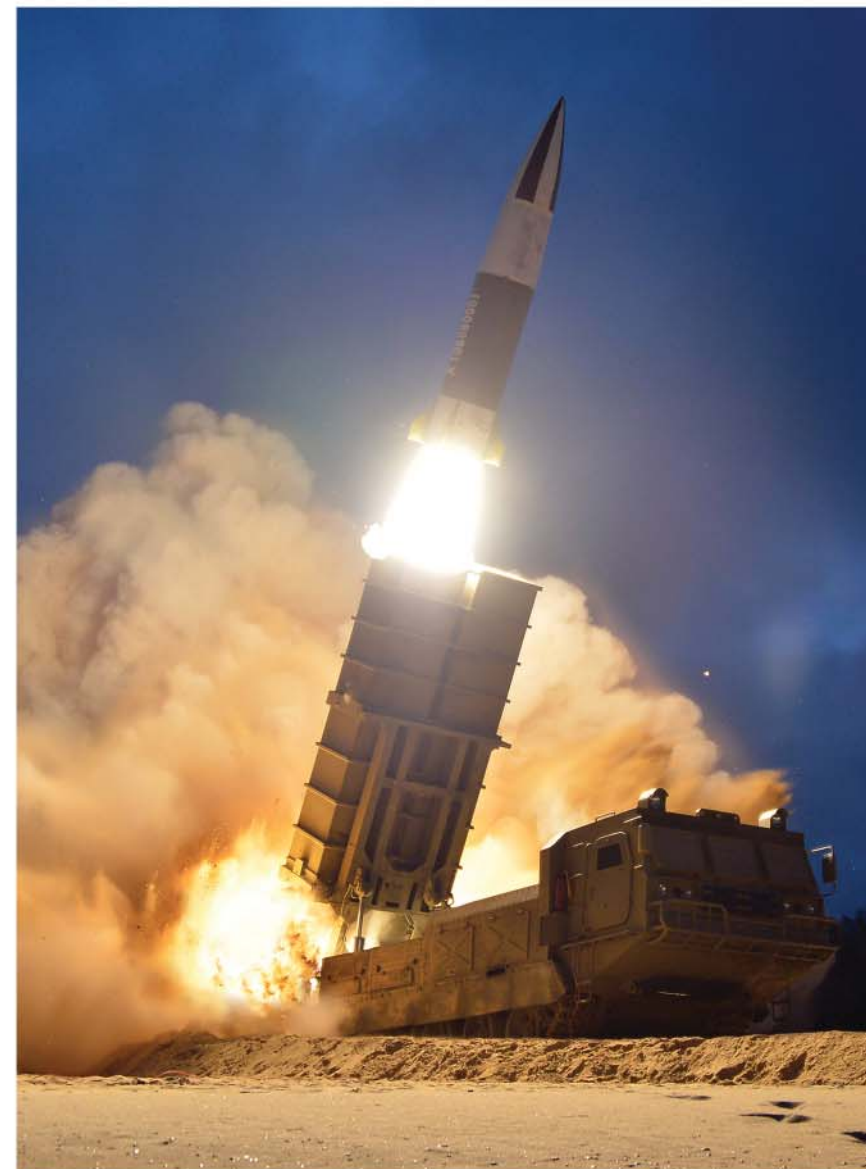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가 기존의 무기체계들과는 또 다른 우월한 전술적특성을 가진 무기체계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에 이 무기체계개발과업을 제시한 당중앙의 전략전술적기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여 시험사격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사격구령을 내리시자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을 터뜨리며 위력한 주체탄들이 자기의 탄생을 알리듯 눈부신 섬광을 내뿜었다.

시험사격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새 무기체계의 우월하고도 위력한 설계상요구가 완벽하게 현실화되였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가장 고결한 조국애를 지니고 당의 국방공업발전전략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라의 방위력을 끊임없이 다져가고있는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영웅적이며 애국적인 위훈은 우리 당의 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기록될것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글 정기상

공화국기 높이 날린다

9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이 나붓긴다.

주체37(1948)년 9월 9일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성상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넘으며 인민들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긍지높은 력사가 어려있는 국기이다.

지난날 나라없는 망국노의 설음을 뼈아프게 체험했던 이 나라 인민에게 있어 오각별 찬란한 공화국기는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품, 보금자리의 상징이였다.

그 어디에서도 선참으로 한눈에 안겨드는 이 삼색기는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이 나라 인민의 권리를 과시하는 징표와도 같았다.

인민들은 그 기발아래 뭉쳐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였고 그 기발을 지켜 준엄한 조국해방전쟁(1950. 6-1953. 7.)에서 승리를 안아왔다.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모두가 떨쳐나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였고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꾸려놓았다.

언제나 공화국기발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 조선인민이다.

공장과 전야, 초소와 학원 등 그 어디서나 공화국기발이 더 힘차게 나붓기게 할 애국의 마음 안고 지혜와 힘과 열정을 바쳐가는 사람들을 볼수 있다.

그들속에는 국제체육경기대회의 시상대에서 오르는 국기를 바라보며 눈물짓는 체육인들도 있고 세계기억력선수권대회에서 1등을 하고 람홍색기발을 머리우로 높이 들어올린 대학생들도 있다.

륙지와 떨어진 외진 섬에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바라며 등대를 지켜가는 사람들도 있다.

세차게 퍼덕이는 그 기발아래 자기의 정든 일터와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고 바로 그 기발아래서 보다 아름다운 희망과 미래가 꽃펴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하는 조선인민이다.

사진, 글 강수정

살림집에도 외진 등대섬에도 공화국기가 날리고있다.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있다.

세멘트증산으로 들끓는다

황해북도 상원군에 자리잡고있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은 자기 기업소를 공원속의 공장이라고 자랑한다.

1980년대 중엽 이 기업소가 일떠설 때 총투자액의 25%에 해당한 자금이 제진설비설치에 돌려졌다고 한다.

하기에 기업소가 만부하로 돌아가도 먼지가 없고 굴뚝은 서있어도 연기가 없으며 깨끗한 환경속에 과일이 주렁지고 새들이 날아예는 희한한 풍경이 펼쳐져있는것이다.

주체화가 확고히 실현된 공장, 현대적인 기업소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지니고있는 이곳의 종업원들이다.

이 일대에는 수백년을 캐먹을수 있는 수억t의 석회석이 매장되여있으며 련합기업소에서는 조업초기부터 중유가 아닌 무연탄에 의한 부유가소식소성방법으로 세멘트를 생산하고있다.

소성로의 착화도 중유가 아닌 국내의 갈탄으로 진행하고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내화물도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보장하고있다.

원료배합과 분쇄, 저장에 이르는 원료준비의 전 공정과 소성공정, 크링카분쇄공정 등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되여있고 중앙조종실에서 원격조종되고있는것으로 하여 현장에서는 사람을 거의나 찾아볼수 없다.

오늘도 기업소에서는 국내의 원료와 연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풀면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모체기업소가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중앙조종실에서는 연료와 전기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생산을 늘이기 위해 원료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조종을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소성직장의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소성로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질좋은 크링카를 생산보장하고있다.

조합원료, 분탄직장들에서는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원료, 연료보장을 따라세우고있으며 세멘트직장에서는 한t의 세멘트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계획을 초과완수하고있다.

원료, 연료보장을 맡은 련합기업소의 산하단위들에서도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상원석회석광산, 삼청광산, 화천탄광의 로동계급은 굴착기와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석회석을 비롯한 원료와 석탄을 제때에 생산보장함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계획수행에 이바지

상원석회석광산에서는 채굴설비와 륜전기재들을 만가동시켜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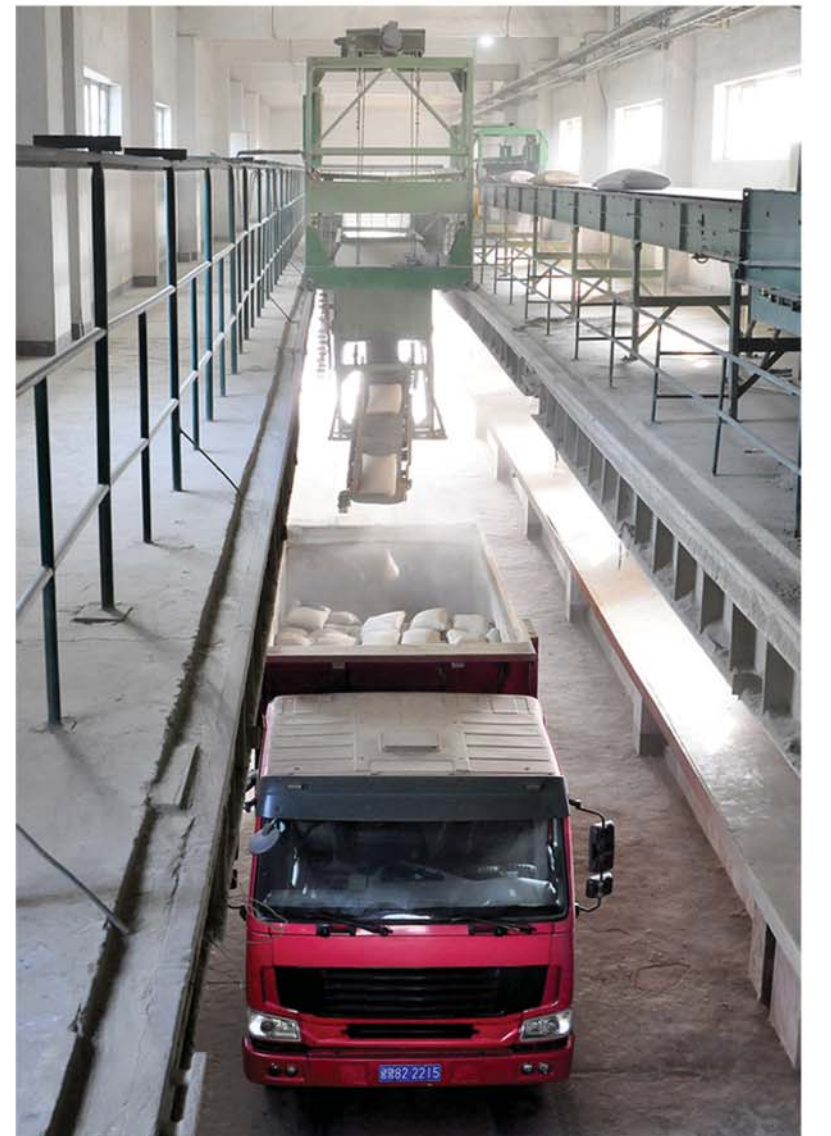
하고있다.

공무직장, 주강직장 등 보장부문의 로동자들은 내부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에 필요한 주강주물품, 기계가공품들을 제때에 보장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적인 련속공정조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경영활동을 현대화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활기있게 추진하고있다.

오늘의 자력갱생대진군에서 상원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칠 일념 안고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하여 화차마다 세멘트를 가득 실은 렬차들이 련이어 떠나가고있다.

사진 리명국, 글 최광호

련합기업소에서는 선진적인 련속공정조종체계를 받아들여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산촌의 양어장

평안남도 은산군에는 사시절 온도가 13℃이고 초당 0.4㎥~0.5㎥씩 솟구치는 샘물을 원천으로 하는 신창양어장이 있다.

양어를 적극 장려할데 대한 국가의 정책을 일관하게 구현하여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줄기찬 노력속에 양어면적은 60년전의 창립시기에 비해 6배로 늘어났다.

그리고 양어하는 물고기종수도 훨씬 늘었다.

양어장에는 실내 및 야외양어못들과 알깨우기실, 새끼고기사육실, 물려과장, 종합조종실, 분석실, 사료가공실 등 필요한 양어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자연물흐름식체계와 함께 재순환리용체계도 확립되여있어 사시장철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드는 양어못들에서는 철갑상어와 칠색송어, 룡정어, 잉어, 열묵어 등 랭수성 및 온수성물고기들이 욱실거리고있다.

그 모든 물고기들의 번식과 성장에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이곳에서는 첨단양어기술에 의거하여 해결되고있다.

양어못면적 대 로력, 물량 대 물고기생산량이 수자적으로 따져지고 로력절약형, 물절약형양어가 실현되여 생산에서 더 큰 실리가 이룩되고있다.

최근년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사람들의 건강에 좋은 장수어의 서식장을 꾸려놓았으며 정장어와 쏘가리 등을 양어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그리고 이 일대의 자연기후조건과 풍치에 어울리게 태양빛전지판들을 설치하고 풍력발전기도 세워 경영관리에 필요한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고있다.

신창양어장의 선진적인 양어기술과 경험을 배우기 위하여 전국각지의 양어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고있다.

사진 안철룡, 글 박병훈

칠색송어

정장어

장수어

열묵어

룡정어

철갑상어

쏘가리

새끼고기원형못

자연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고있다.

양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있다.

장수어양식장

문수물놀이장에서

인민의 기쁨 넘치는 대동강반

여느때도 그러하지만 특히 여름계절이면 대동강반의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은 매일같이 흥성인다.

주체101(2012)년 7월에 준공된 릉라인민유원지에 있는 릉라곱등어관과 릉라물놀이장, 릉라유희장 등을 찾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곱등어와 물개들의 재주부터 보겠다며 릉라곱등어관으로 먼저 발길을 돌리는 학생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릉라유희장의 1구역과 2구역을 거듭 오가며 유희기구들을 타는 청춘남녀들도 있다.

남녀로소모두가 모여들어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한 물보라로 가셔내는 릉라물놀이장의 전경도 볼만하지만 동평양의 문수지구에 근 11만㎡의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문수물놀이장의 풍치는 더더욱 장관을 이룬다.

사진 안철룡, 글 문광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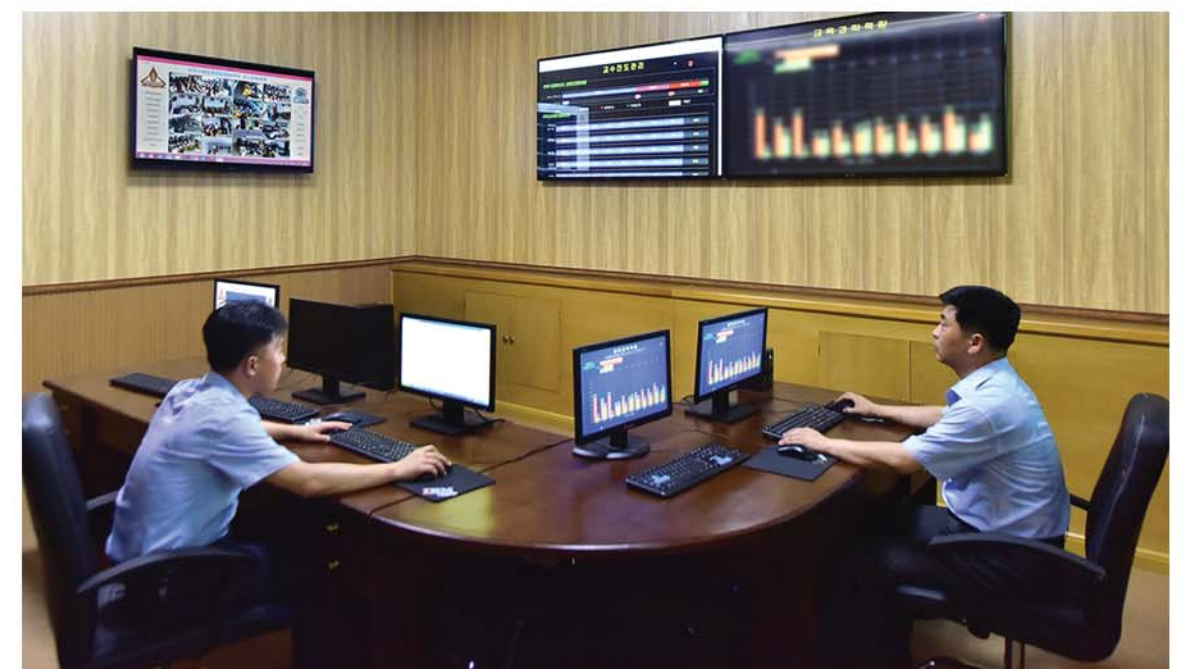
로라스케트장에서

릉라인민유원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릉라곱등어관에서

경공업기술인재들이 자란다

평양시 선교구역에는 경공업부문의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연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다.

주체48(1959)년 9월 창립당시 6개의 학과와 11개의 강좌, 30여명의 교원들이 있었던 대학에는 현재 식료과학기술대학, 방직과학기술대학, 생물자원과학공학부, 재료과학공학부,

대학에서는 새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일용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등 10여개의 대학, 학부들과 식품과학연구소, 방직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들 그리고 박사원이 있다.

수백여명의 교원, 연구사들중 80%이상이 학위학직소유자들이다.

최근년간 대학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경공업발전을 떠메고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 더욱 활기있게 추진되고있다.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진행되는 속에 30여개의 새 과목들이 나오고 280여개 과목의 교수안들이 새롭게 작성되였다.

현대교육과학기술을 도입한 교육방법들이 수많이 나오고 교육실천에 의의있는 실험실습설비들이 창안제작되여 교수사업의 높은 수준을 담보하고있다.

하여 대학생들속에서는 최우등생이 계속 늘어나고 전국적인 대학생경연, 전시회들에서 대학의 실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현대화, 국산화, 질제고의 기치를 추켜들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는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도 이 대학 졸업생들은 크게 활약하고있다.

대학의 연구집단들에서는 식료 및 방직분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공업기지들의 기술공정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류경김치공장의 통배추김치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전반적인 자동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한것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의 근 40개의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대학에서는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박사원생, 학생들도 과학기술연구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불러일으켜 그들이 학창시절부터 드높은 포부를 안고 가치있는 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하고있다.

정보과학기술을 습득해간다.

경제관리모의실습실에서

프로그람작성을 위한 토론을 하고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을 제일가는 중대사로 내세우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나라의 경공업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려는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사진 홍광남, 글 김미예

우승을 안아온 녀자축구선수들

- 제30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

이딸리아에서 진행된 제30차 여름철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이 우승의 단상에 올랐다.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 녀자축구경기에는 조선, 중국, 로씨야, 브라질, 메히꼬를 비롯한 12개 나라와 지역의 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녀자축구선수들은 조별련맹전에서 카나다, 남아프리카팀들을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준준결승경기에서 이딸리아팀을 4:1로, 준결승경기에서 아일랜드팀을 5:0으로 물리쳤다.

12일(현지시간) 조선팀과 일본팀사이의 결승경기가 있었다.

조선선수들은 경기시작부터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방전을 벌리였다.

전반전 30분경 중간지대에서의 적극적인 공장악과 량익측 돌파로 일본팀을 압박하던 조선팀의 7번 위정심선수가 상대팀 문전에서 머리받기로 첫 득점을 하였다.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조선선수들은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정확한 공련락과 재빠른 기동으로 상대팀에 계속 공격을 들이댔다.

득점의 기회를 노리던 12번 전소연선수가 경기시간 89분경 공격마당 중간지대에서 일본팀 꼴문을 향하여 강하게 찬 공이 그대로 그물에 걸리였다.

결국 경기에서는 조선팀이 일본팀을 2:1로 타승하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녀자축구선수들이 련전패승으로 자랑찬 우승을 안아온 소식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최의림

소년농악무로 이름난 학교

농악무는 예로부터 나이를 막론하고 조선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민속무용의 하나이다.

동대원구역 동대원고급중학교의 무용소조는 소년농악무를 잘해서 평양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름났다.

30명규모로 운영되는 이 소조에서는 해마다 입학생들속에서 새 소조원들을 받아들인다.

조선무용은 팔동작을 위주로 하면서도 거기에 다리동작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몸전체가 조화롭게 움직이게 하는데 주요한 특징과 매력이 있다. 그러므로 신입소조원들은 우선 상체의 유연성을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부터 하나하나 배운다.

다음으로 익혀야 하는것은 걷기동작들이다.

두어달동안 직심스레 무용기초를 다진 후에야 그들은 농악무의 여러 춤가락들을 배우게 된다.

그중에서도 상모춤가락은 여러가지 장단에 맞추어 굴신과 목놀림 등 몸전체의 움직임을 잘 배합해야 하므로 여간한 노력으로 습득할수 있는것이 결코 아니다.

하여 상모춤가락을 숙련하는 기간은 신입소조원들마다 각이한데 보통 2～3달정도 걸린다.

이때가 민속무용을 배우는 그들에게는 극한점과 같은 시기라고 한다.

이런 신입생들에게 힘으로 되는것은 자신들이 터득한 묘리도 대주고 동작도 해보이면서 맥을 놓지 않도록 고무해주는 선배들의 방조이다.

서로의 기량을 높여줄뿐아니라 집단의 우의를 두터이하여주는 이러한 과정에 그들은 빠른 속도의 회전이나 조약과 같이 기교가 높은 춤동작 즉 장끼동작들도 련마해나간다.

소조원들앞에는 꽹과리, 징, 새납과 같은 민족악기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장단들을 익혀야 하는 과제도 나선다.

가장 재주가 뛰여난 소조원에게는 새납이 차례지는데 그는 이 악기를 가지고 농악무를 지휘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년정도 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농악무를 터득하게 된다.

모든 소조원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무용을 배우는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성수가 나서 소조활동에 참가한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있는 지도교원 리선옥이 그들을 이끌고있다. 무용교육과 관련한 20여건의 교재들도 집필한 그는 수십년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다.

학교의 무용소조는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에서 해마다 1등을 하고있으며 국가적인 예술공연들에도 자주 참가하여 만사람의 절찬을 받고있다

사진 신충일, 글 김선경

무용소조원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에도 출연하였다.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입원당시 박지원은 두 다리의 마비와 심한 감각장애로 하여 걸을수 없었다.

아침마다 등교길에 오를 때면 나는 문수기능회복원쪽을 꼭꼭 바라보군 합니다.

장애자로 될번했던 나에게 희망을 다시 찾아준 곳이기때문입니다.

고급중학교 학생때인 지난해 2월 7일 아침 나는 갑자기 두 다리가 예전같지 않게 후들거리고 걸음을 내짚기 힘들어 학교에도 못가게 되였습니다.

안깐힘을 다했어도 100m의 거리를 두시간동안에 가는 형편이였습니다.

급성다발신경근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삼륜차에 실린 몸이 된 나는 그처럼 좋아하던 운동은커녕 다시 걸을수도 없게 되였다는 생각으로 눈앞이 막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10여일이 지난 어느날 오후 내가 삼륜차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대동강유보도에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다가오는것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였는가, 병명이 무엇인가 물어보더니 회복될수 있다고 신심을 주던 그가 바로 문수기능회복원의 신경기능회복치료과 과장인 박철송선생님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문수기능회복원에 입원하게 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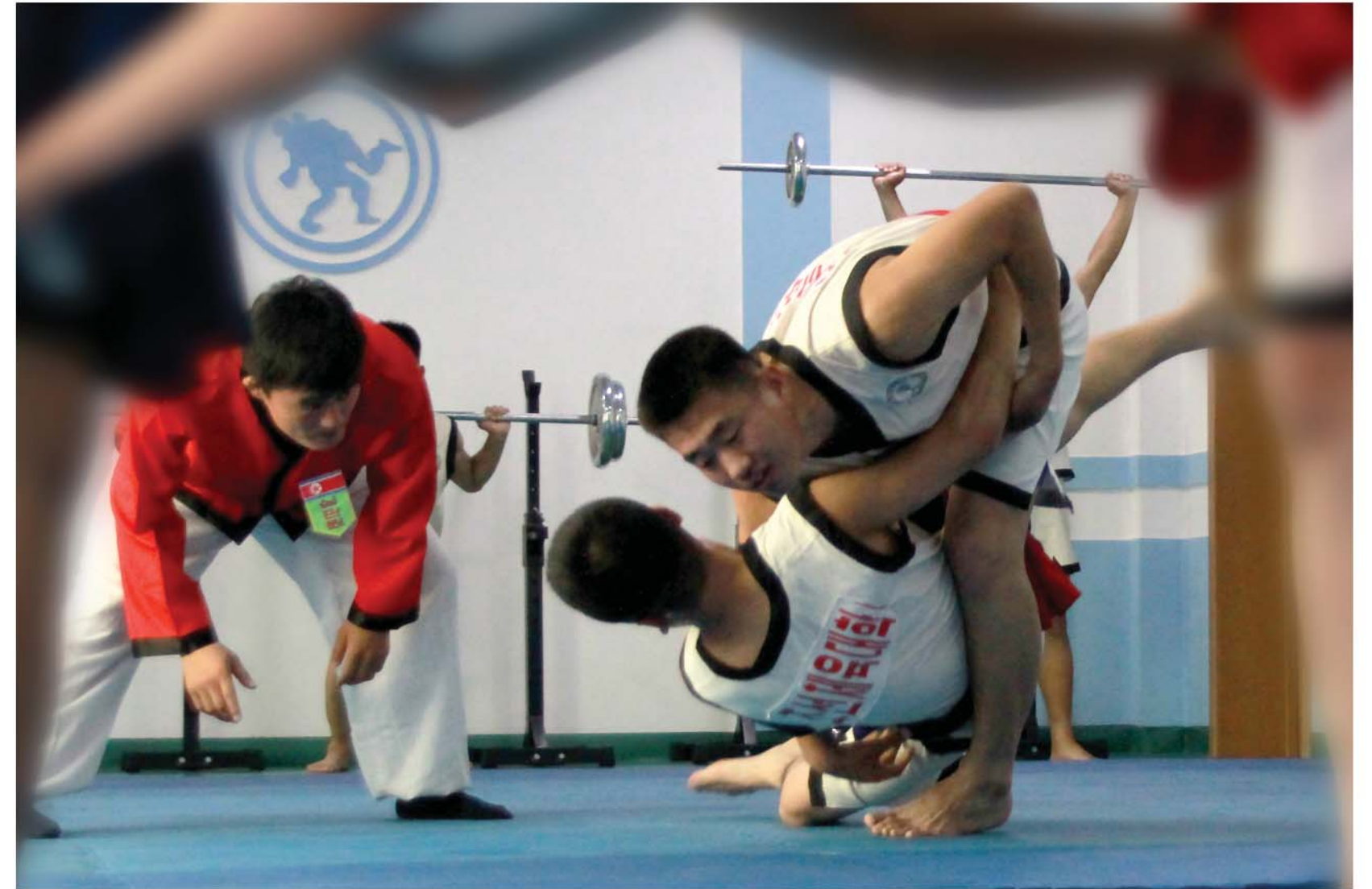
문수물놀이장옆에 자리잡고있는 이 의료봉사기지에는 사람들의 건강회복을 위한 수많은 치료실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치료경험과 기술이 매우 높았는데 거의다 젊은분들이였습니다.

박철송과장선생님만 보아도 34살이였습니다.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고려치료 등 여러 치료들을 받으며 내 상태는 점차 호전되여갔습니다.

하루빨리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없이 아글타글 애써온 과장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은 한주일만에 내가 걸을수 있게 되였을 때는 나보다 더 기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로동자의 자식인 제가 뭐길래.

박지원은 조선체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다.

이곳에서 선천성장애자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퇴원하는것을 나는 입원기간 한두번만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30일만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올해에는 희망대로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하면 이곳을 꼭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조선체육대학 학생 박지원

사진 리철진

문수기능회복원 의료일군들은 환자의 근육을 강화하고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여러 나라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야영생활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지난 7월말부터 8월 7일까지 제34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이 진행되였다.

조선의 각 도(직할시)들에서 온 모범적인 학생소년들과 함께 중국과 로씨야, 웰남, 라오스, 인디아, 도이췰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명의 소년야영단 성원들이 이번 야영의 주인공들이였다.

조선의 명승 송도원의 풍치와 멋진 조화를 이루며 솟아있는 현대적인 과외교양기지-아이들의 궁전에서 그들이 보낸 하루하루는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크나큰 즐거움과 환희의 련속이였다.

하루는 야외물놀이장에서 급강하물미끄럼대와 원통식물미끄럼대를 지쳐내리는 놀이에 시간가는줄 몰랐던 야영생들이 다음날에는 흥미진진한 바다세계를 구경하느라고 수족관을 떠날줄 몰랐다.

그뿐이 아니다.

실내체육관과 전자오락실, 립체률동영화관, 조류사와 거울집 등 야영소의 어디라 할것없이 련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하였다.

푸른 바다와 새하얀 백사장이 어서오라 반기는 해수욕장에서의 시간은 왜 그리도 살같이 흘러가는지.

그들은 친선의 마음과 정을 안고 한자리에 자주 모여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느끼는 감정이 자못 강렬해서인지 낮에는 다채로운 야영생활의 이모저모를 사진기에 담고 저녁이면 일기장을 마주하는 야영생들도 많았다.

송도원국제소년야영은 야영생들에게 있어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체험이였다.

사진 리철진, 글 최의림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창립 100돐기념 적십자활동소개모임 진행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창립 100돐기념 적십자활동소개모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명의로 평양의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조선을 방문한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 총서기와 일행, 조선에서 사업하고있는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련맹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 성원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조선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진행되는 련맹의 활동을 수록한 록화편집물을 시청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과 청소년적십자회원들의 예술공연을 관람하였으며 전시된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사진 안철원, 글 문진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성과 사진전시회 진행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평양의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성과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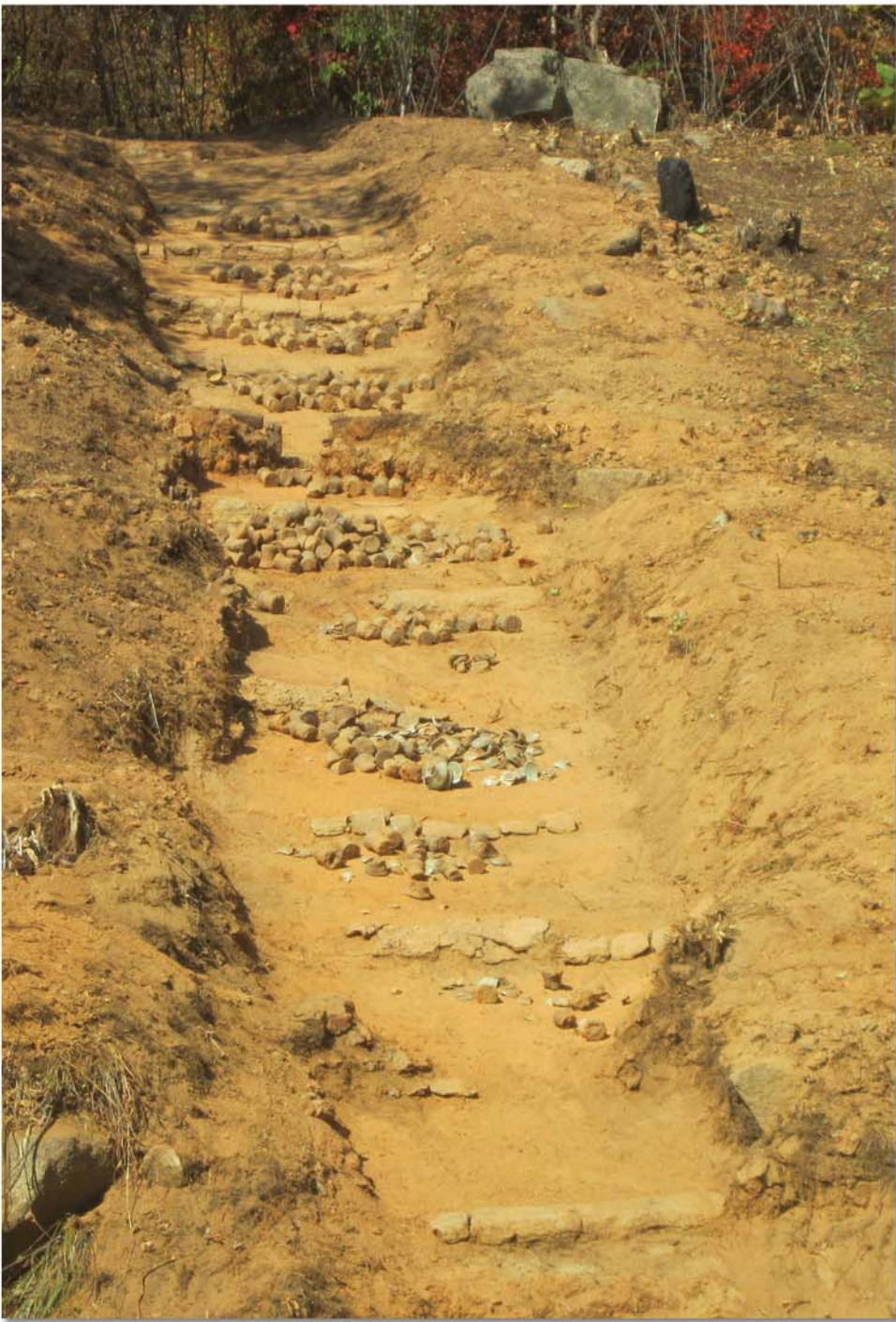
대외문화련락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조선에 체류하고있는 중국손님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중국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전시회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우의와 리해를 보다 깊이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진 손희연, 글 문광봉

씨마스터 2019년 국제탁구련맹 도전급플루스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 진행

씨마스터 2019년 국제탁구련맹 도전급플루스 평양공개탁구경기대회에는 조선과 중국, 노르웨이, 타이, 이란, 인디아, 중국 대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경기는 남, 녀 단식, 복식, 혼성복식경기와 21살미만 남, 녀 단식경기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사진 리진혁

무창동자기가마터에서 발굴된 자기류와 받침대, 벽돌들

라선시 라진지구에서 발굴된 무창동자기가마터

조선의 북부 라선시 라진지구에서 자기가마터유적이 새로 발굴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연구사들이 라선시민족유산보존사의 연구성원들과 함께 발굴한 이 유적은 무창동에서 북서방향으로 10㎞정도 떨어진 사기골 오른쪽봉우리의 남쪽 경사면에 자리잡고있다.

현재 가마터에는 옛 사람들이 자기를 만들때 리용하던 가마칸과 굴뚝시설이 남아있다.

가마는 산경사면을 따라가면서 바닥을 약간 파고 진흙과 벽돌로 벽을 쌓은 다음 천정을 궁륭식으로 만든 오름식가마이다.

가마터에서는 자기류와 받침대, 벽돌과 같은 유물들이 발견되였다.

발굴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가마터는 조선봉건왕조(1392년-1910년)시기의 것으로 인정되고있다.

무창동자기가마터는 나라의 동부지역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가마터 유적으로서 선조들의 높은 자기제조술을 보여주고있다.

가마의 중간부위에 쌓아만든 열조절시설물은 이곳에서 새롭게 발견된것이다.

자기들의 밑굽에 3개의 흙구슬을 붙여놓아 소성후 다른 자기들과 쉽게 분리되게 한것과 벽체를 돌로 쌓았던 이전의 가마터들과 달리 벽돌과 진흙을 결합하여 벽체를 형성한것 등도 당시의 자기제조술을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사진, 글 리기송

새로 발굴된 구석기시대 후기의 유적

조선의 고고학연구사들이 평안남도 숙천군 신풍리일대에서 구석기시대 후기(5만년전-1만 5 000년전)의 사냥터와 석기제작터를 새로 발굴고증하였다.

리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2㎞정도 떨어진 논판에 위치하고있는 유적에서는 460여점의 짐승뼈화석과 10여점의 골기(짐승뼈로 만든 로동도구), 20여점의 석기와 1 200여점의 석기반제품 등이 나왔다.

유적층은 6개의 층으로 되여있으며 유물들은 3층과 4층의 경계선 즉 니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연구사들은 전자상자성공명년대측정을 비롯한 여러가지 분석과 감정을 진행하여 발굴된 유물들의 형성년대가 1만 5 700여년전이라는것을 해명하여 유적이 구석기시대 후기의것이라는것을 확증하였다.

벌방지대에서 발굴된 이 유적은 이 지대에서 사냥을 진행한 당시 사람들의 활동과정,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계승관계를 파악할수 있게 하고있다.

사진, 글 고철수

대표적인 짐승뼈화석들

대표적인 골기들
(짐승뼈로 만든 로동도구)

대표적인 석기들
(돌로 만든 로동도구)

낸곳 : © 조선화보사 2019 주소 :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인쇄소 : 외국문출판사 인쇄공장
ISSN 1727 - 9224
편집 신재철 13606-1980221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로 게재됩니다.
http ://www.korean-books.com.kp 전자우편(E-mail) : flph@star-co.net.kp

뒤표지: 신양금강의 가을
사진 공유일